



inside 부산금융

INSIDE BUSAN FINANCE

inside **BIFC**

권두칼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최준우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소개

부산금융중심지와 2030 부산월드엑스포

전문가 인터뷰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 원장 김진우

금융 유관기관 업무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inside **FINANCE**

국내 금융제도 현황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가시적 성과

특화금융시장 동향

2021년 선박 및 선박금융 시장 동향



Vol. 27

www.kbfc.or.kr



부산국제금융진흥원
Busan Finance Center

inside 부산금융

INSIDE BUSAN FINANCE

CONTENTS

inside BIFC

- 04 권두칼럼
부산의 가능성과 미래, 공공금융정책의 역할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최준우
- 07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소개
부산금융중심지와 2030 부산월드엑스포
- 10 전문가 인터뷰
'금융중심지 부산' 미래를 이끌 글로벌 금융인 육성방안
-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 원장 김진우
- 14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뉴스
- 16 금융 유관기관 업무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inside FI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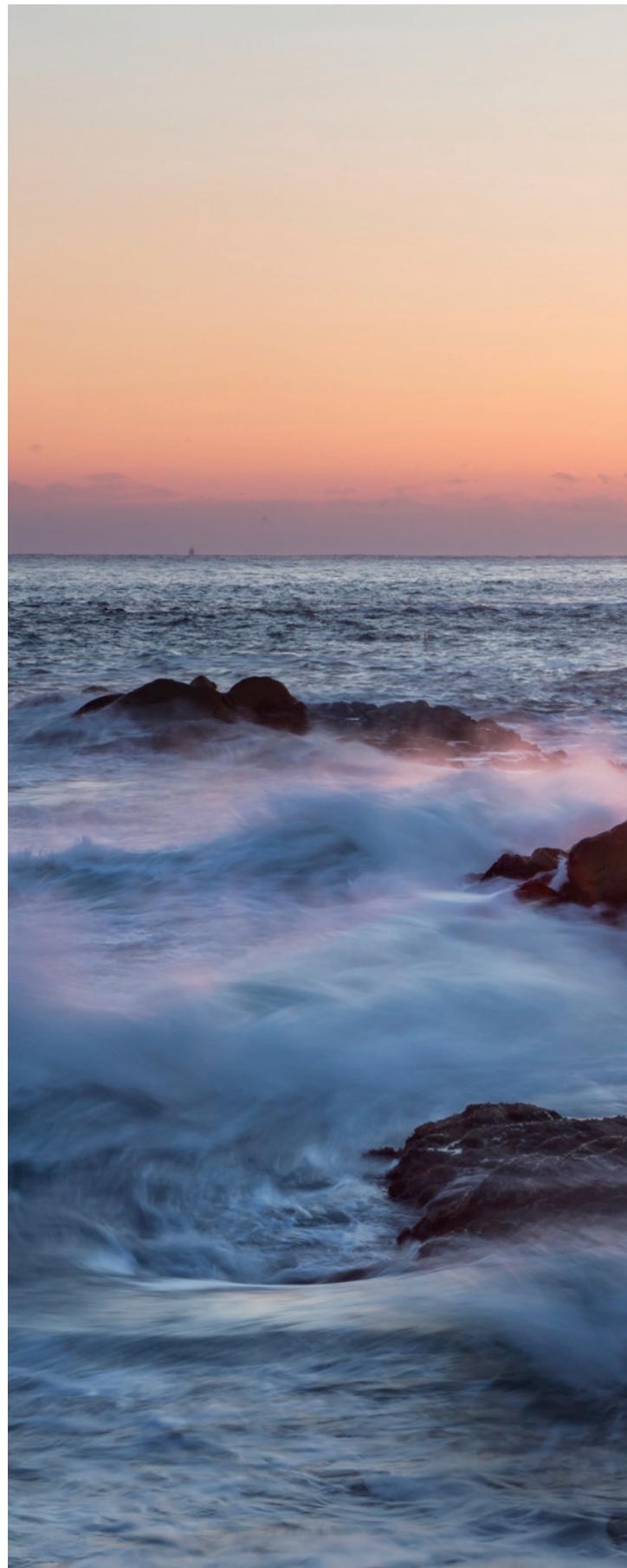
- 18 국내 금융제도 현황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가시적 성과
- 20 특화금융시장 동향
2021년 선박 및 선박금융 시장 동향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종서

inside APPENDIX

- 24 부산 일반 현황
- 25 부산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 26 부산금융중심지 일반 현황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부산국제금융진흥원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
	TEL. 051-647-9052 FAX. 051-633-0398 www.kbfc.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051.636.1215 www.ggad.co.kr





기장군 죽성 해돋이

부산의 가능성과 미래, 공공금융정책의 역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최준우

부산은 매우 가능성 있는 도시이다. 그 가능성의 원천은 도시의 다양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산이 많고 평지가 부족하여 산업시설과 관광지역이 해안가에 몰려 있고, 그로 인해 도시가 매우 독특한 구조로 발달했다. 단일 도시 행정구역 안에 해수욕장, 바다, 강, 산, 마천루, 신도시, 공업지대, 거대 항만이 모두 존재한다. 인구 350만의 대도시이면서 이렇게 입체적이며 복합적인 다양한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 특히 산을 타고 산 자체를 둘러싸면서 발달한 주거의 집합체가 이정도의 대규모로 존재하는 도시는 우리나라 안에서 부산이 유일하다.

부산의 도시개발도 이런 입지조건으로 인해 매우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부산 관광단지는 최근 제2롯데월드부터 대규모 리조트까지 공사가 완공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항만 인프라 이전 후 도심이 재개발되고 있는 북항 재개발, 그리고 새로운 도시의 개념을 제시하는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 등 여러 형태의 도시개발 및 재개발이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잘 알려진 대로 도시의 재개발과 택지공급, 도로 및 천철 등 인프라의 건설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정책조율과 예산분배 그리고 경기변동을 감안한 적시성 등이 잘 맞아떨어져야 적절한 도시의 확장 및 재개발이 가능하다. 북항 재개발의 경우 대한민국 제1의 무역항인 부산항을 신항으로 이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부산항 부지 및 간척을 활용한 재개발이 한창이다. 그러나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은 과거 투자유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10년째 난항을 겪었던 바 있다. 지난 10년간 두 사업의 상이한 진행과정은 재개발의 채산성이나 시기적인 조율과정, 그리고 사업진행에 따른 금융지원 등이 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사업 측면에서 가지는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

최근에는 전면철거 후 재개발 방식에 수반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재생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도시재생은 재개발과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은 재개발을 포함한 말 그대로 포괄적인 차원의 도시의 재활용에 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 재개발은 원주민의 전면적인 퇴거 및 공동체의 파괴를, 도시재생은 공동체와 건축물의 보존 그리고 원주민들의 정착을 의미하는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인다. 즉, 재개발과 도시재생은 다른 범위의 집합이 아닌데도 재개발의 부작용을 극심하게 겪은 영향으로 인해 도시재생의 경우마저 도심재개발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부산이야말로 도심재개발을 비롯한 도시재생이 가장 필요한 도시이다.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례로 첫손에 꼽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도시재생의 의미와는 다른 면이 많다. 감천문화마을의 인구는 1995년에 비해 현재 60% 이상이 감소하고 있으며, 폭발적으로 증가한 관광객들로 인해 기존 거주민들은 교통정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편을 크게 겪고 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외지인이 주말을 점령한 마을을 두고 성공한 도시재생이라고 볼 수 있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부산의 산복도로를 포함한 산복 주거집합체는 대부분 노후화가 심각하고 구조적으로 위험한 주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도 매우 불편하다. 산을 둘러싸고 무계획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필지가 세분화되고 권리관계 또한 복잡해졌다. 또한 특유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개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크고 사업성이 떨어져 기존 방식인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의 건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부산은 노후 주거단지 건축물의 연한이나 그 거대한 규모를 고려해볼 때 소규모 도시재개발이 가장 적정하고 시급한 도시라고 볼 수 있다. 때맞춰 최근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적인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소규모 도시재개발은 매입 후 임대주택 등을 잘 활용할 경우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원주민 커뮤니티의 보존이라는 측면 또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후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소규모로 개발해 나가는 것은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원이 없이는 그 효용이 떨어질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시범단계에서 면밀한 계획 아래 산복도로를 포함한 블록단위의 정비 및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도시재생과 소규모 재개발의 장점을 융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 방향 및 정비사업 모델을 설정하고 시범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공공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도시재개발 또는 도시재생은 이익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심, 특히 부산의 도심에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수익성은 낮지만 도시환경 정비 필요성이 시급한 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를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도시의 미래를 재창출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을 부산에서 볼 수 있다면 이것은 향후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이정표를 제공함과 동시에 심화되는 지방침체의 문제에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독특한 도시경관에 아름답게 어울리는 주택단지가 더해진다면 부산은 매력 있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금융기관, 그리고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협력하여야 한다. 커다란 가능성이 잠재된 부산은 다양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도시의 개발 뿐만 아니라 낙후된 도시의 재생을 위해서도 공공금융정책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한 가능성의 도시 부산을 위해 많은 역할을 준비할 것이다. █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금융중심지와 2030 부산월드엑스포

WORLD EXPO 2023 BUSAN KOREA

금융중심지의 기반 월드엑스포

최초의 세계박람회이자 유럽최초로 개최된 **1851 런던 엑스포**를 시점으로, 세계 각국이 참가하여 생산품을 합동으로 전시하는 월드 엑스포(Exposition internationale)는 1928년에 파리 국제 박람회 조약에 따라 가맹국의 주최하에 5년마다 개최됩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자국의 선진 과학 문명의 산물을 통해 국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대전에서 첫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2012년 두번째로 여수 엑스포를 개최하였으며, 두 엑스포는 모두 인정 박람회(International Expo)였습니다. 금융중심지 부산이 도전하는 2030 엑스포는 세계 12번째 등록 박람회(World's Fair)가 될 것입니다. 만약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한국에서는 최초의 등록박람회가 열리게 되며, 우리나라는 세계 3대 행사(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미래에너지(future energy)’를 주제로 3개월간 개최된 **2017 아스타나 엑스포**는 중앙아시아 최초 엑스포로서, 카자흐스탄은 동 엑스포 개최시점을 전후하여 아스타나에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금융과 엑스포의 융합을 도모하였습니다. **2021 두바이 엑스포**는 아랍권 최초의 엑스포로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엑스포이자 도시 전체를 엑스포 전시장으로 활용하였고,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라는 주제 아래, ‘기회(Opportunity)’, ‘이동성(Mo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소주제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두바이의 국제금융네트워크를 동 엑스포의 홍보 및 행사에 적극 활용하여, 이를 계기로 저희 부산국제금융진흥원도 두바이국제금융센터에서 개최된 세계금융센터연합(WAIFC) 회원총회에 참석하고 두바이국제금융센터와 상호 국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의 주요 배후지역(hinterland)인 부산항 북항 일원에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항해(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를 주제로 펼쳐질 예정인 **2030 부산 엑스포**의 의의와 유치추진 현황을 살펴봅니다.



1 개최 의의

■ 국내 첫 ‘등록 엑스포’ 개최로 국가·지역 브랜드 제고

※ 등록 엑스포 : 인류의 진보를 주제로 BIE에 등록되는 5년 주기의 대규모 박람회

※ 인정 엑스포 : 등록 엑스포 사이에 개최되는 중규모 박람회 (특정 주제)

- 1893년 시카고 엑스포 첫 참가* 이후 137년 만에 첫 개최

* 세계박람회위원회 초청으로 참가, 이후 1900년 파리 엑스포에서 첫 국가관 마련

- 세계 12번째*(아시아에서는 4번째) 등록 엑스포 개최

* 벨기에, 프랑스, 미국, 아이티, 캐나다, 일본, 스페인, 독일, 중국, 이탈리아, UAE

- 3대 행사(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

*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 2030년 스마트 혁신강국으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

- ICT·제조업 강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차세대 모빌리티, 6세대 통신(6G) 등 혁신기술이 이끄는 초연결 미래사회 모습을 구현

- 마스(MaaS*), 스마트공항·항만,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 주도권 확보

* 비행기, 버스, 택시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시킨 교통수단 공유서비스

■ 부산의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한류 글로벌 확산

-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 웹툰·게임·가상현실 등 부산 컨텐츠와 한류의 글로벌 확산 계기

- 동북아 해양수도의 이점을 활용하여 부산에서 시작되는 한반도·동북아 평화의 해상문화교류 거점도시 역할 강화

■ 동남권 제2 경제권의 부흥과 국가 균형발전 촉진

- 세계박람회가 북항 재개발*, 부산 대개조를 견인하여 원도심 개발 모범사례 창출

* 북항 일대에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클러스터, 전시컨벤션 타운 조성

- 부산·경남·창원·울산 등 동남권이 동북아 핵심경제권으로 부상



사진: 부산시 2030엑스포추진단

2 유치 추진현황

행사개요

- 개최기간 : 2030. 5. 1 ~ 10.31.(6개월간)
- 개최장소 : 북항일원 344만m²(육지 283만m², 수역 61만m²)
- 예상 관람객 : 3,218만명

유치 대상기구

- 국제박람회기구(BIE) ※BIE(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 * 의장: 최재철(한국), 사무총장: 드미트리 케르켄테즈(그리스), 집행위원장: 알랭 베르제(프랑스)

3 유치 홍보 메시지

Why EXPO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선언장

- EXPO는 국가 총역량과 부산시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장
- EXPO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여는 IGNITER

Why Korea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포지셔닝

- 한국이 과학기술, ICT, 혁신, 산업뿐 아니라 최근 K-방역, 한류 등 소프트파워로 세계에 표준 제시 기회
- 한국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해를 중재하는 가교국가

Why Busan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 부산

- 부울경 제조업의 4차산업혁명 및 스마트화를 통한 재도약
- 수도권 과밀화, 청년의 기회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
- 한국의 새로운 성장축 확보 및 국가 균형발전 계기 마련

대전환, 공존의 플랫폼



물류, 교통의 허브

바다, 육지, 항공의 연결

- 가덕신공항 및 철도망 확장을 통해 바다, 육지, 항공을 잇는 연결성 부각
- 세계 2위의 환적항, 한국의 제1항구 위상 명확히 전달



스마트경제의 허브

미래를 여는 탄소기술

- 탄소경제를 향한 뉴딜과 미래 사회를 향한 스마트기술의 실천장으로 부울경에 대한 관심 조명



상생, 문화의 허브

한국전쟁에서 세계로

- K-Culture를 비롯, 세계의 생각들을 모으고, 연결하는 부산의 가치 부각
- 가난과 전쟁으로부터 회복과 치유를 시작한 도시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허브포트 부산, 부산(in Korea)EXPO

‘금융중심지 부산’ 미래를 이끌 글로벌 금융인 육성방안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 원장
김진우

Q. 빅데이터, 블록체인, 핀테크, AI 등 혁신기술 발전으로 금융산업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의 커리큘럼과 타 대학원과의 차별화된 강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은 『파생금융 전문지식과 글로벌 감각을 지니며 고도의 윤리의식을 겸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금융위원회와 부산광역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2018년 9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생금융상품 및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금융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실무지향적인 사례연구 및 금융세미나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금융산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AI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혁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 대학원에서는 매 학기 핀테크, 블록체인, 인공지능, 디지털금융 관련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으며, 금융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코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파이썬과 R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과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학생들이 금융전문인력으로서의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방학 중 외국 유명대학으로 해외연수를 가서 6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CFA나 FRM과 같은 국제금융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기숙사 및 개인별 스터디 공간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지난 4년간 금융대학원 운영의 주요 성과와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A. 우리 대학원은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6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4기 재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주로 국내 유명 은행들과 금융공기업, 자산운용사 등에 취업 하여 활동함으로써 우리 대학원은 금융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과 재학생의 절반 정도는 우리 대학원과 MOU를 맺고 있는 한국거래소, 부산 소재 금융공기업(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그리고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은행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의 재직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원은 현재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경력자들에게도 파생금융상품과 디지털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 종사자의 금융전문지식 재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최우선 목표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원 역시 파생금융 전문지식과 글로벌 감각을 지니며 고도의 윤리의식을 겸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산업 종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도할 최고의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최고의 금융전문 교육기관이 되어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Q. 부산이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문금융인력 확보와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금융·법률·회계·세무 등 전문가그룹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융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우리 대학원은 파생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디지털금융 관련 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 빅데이터 분석에 능통한 파생금융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부산대학교는 우리 대학원을 국내 최고의 금융전문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무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은 재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과 지원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산업에서는 디지털 전환 신기술 도입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핀테크기업과 빅테크기업과 같은 비금융IT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로 인해서 금융산업의 구조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종사자의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원은 금융기관 및 금융공기업 재직자들에게 더 많은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이 되면 금융기관 및 금융공기업 재직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특수대학원 형태인 우리 대학원을 금융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부산에 정주하며 부산금융중심지를 견인할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먼저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

기개발과 학습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풍부한 금융실무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재무금융 분야의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자신의 실무 경험에 바탕을 둔 전문적인 학술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 이외에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고, 인재들이 부산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취업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비록 부산이 여의도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금융전문인력이 부산에서 취업할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거래소와 5대 금융공기업 그리고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인 BNK금융지주를 제외하고,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은 전무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대학원을 졸업한 인재들이 부산에 정주하면서 금융전문가로서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금융산업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기존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금융산업 변화에 발맞추어 부산 지역의 지산학연이 협조하여 최근의 금융혁신을 이끌고 있는 비금융 IT회사의 유치 및 지원이나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자산 거래소 유치, 암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취업 기회를 늘려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부산지역 내 지자체 및 금융(공공)기관 등과 지산학연 협업을 통해 금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학원의 졸업생과 재학생 중 절반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공기업 재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원은 금융산업 종사자에 대한 재

교육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 종사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내에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존재하며, 각 금융기관은 서로 다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의 특성이나 역할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학원은 지자체나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 교육 과정 개발을 의뢰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에 부산 소재 모 기관에서 사내 교육 차원에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의뢰 받아서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불가능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중도에 포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저희 대학원은 적극적으로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1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 BIFC에 입주

일시/장소 2021. 7. 30.(금) /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

주요 내용 부산시가 4개국 6개사를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우선 입주대상으로 선정한 뒤 첫 입주하는 기업으로, 문현금융단지 조성 이후 11년 만에 입주하는 글로벌 금융기업임



2 2021 한국경제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일시/장소 2021. 8. 26.(목) ~ 27.(금) /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오프라인) 및 Zoom(온라인)

주 제 Korea and the World Economy Facing COVID-19 Pandemic and Regional Development

주최/주관 한국경제연구학회,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주요 내용 Strategic Agendas for Korean Financial Industry and Busan as an International Financial Hub 정책세션을 통한 부산금융중심지 발전 전략 모색



3 제8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 개최

일시/장소 2021. 10. 6.(수) /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컨퍼런스홀 A,F

주 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혁신 선도하라

주 최 부산광역시, 부산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BNK금융그룹,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 한국해양대학교 금융대학원

주 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주요 내용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



4 2021 부산금융중심지 홍보 대학(원)생 UCC공모전 시상식 개최

일시/장소 2021. 10. 22.(금) / BIFC 53층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회의실

주 제 ①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달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발전 방안
② 부산 금융중심지와 연관된 자유 주제

주요 내용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시각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부산금융중심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UCC동영상 제작을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에 적극 활용



부산해양금융위크(Busan Maritime & Finance Week 2021, BMFW) 개최

일시/장소	2021. 11. 2.(화) ~ 4.(목) / 웨스틴 조선 호텔 부산 그랜드 볼룸
주 제	해양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의 기회와 과제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금융감독원, 한국해양진흥공사, MarineMoney,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주요 내용	기존의 비슷한 시기 기관별로 따로 열던 행사를 최초로 통합하여 컨벤션, 콘퍼런스, 포럼, 기업설명(IR), 비즈니스 미팅 등 행사의 동반 상승효과를 높이고, 투자유치 활성화 도모



2021 부산머니쇼 개최

일시/장소	2021. 11. 4.(목) ~ 6.(토) / 베스코 제2전시장
주 최	부산광역시, 매일경제신문
공동주관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블록체인어스,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규 모	70개 금융관련 기관 및 기업 참여, 165개 부스 운영
주요 내용	주식, 부동산, 디지털자산 등 재테크 세미나, 금융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메타버스 엑스포 등



부산시-AI 보안 국제 프로토콜위원회, 부산본부 설립 업무협약 체결

일시/장소	2021. 11. 8.(월) / 부산광역시 국제의전실
주요 내용	부산시와 IEEE* ‘프로토콜 위원회’는 부산본부 설립 준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여 시 주관 인공지능 행사에 참여하고 관련, 국내 스타트업 지원 및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국제교류의 기틀을 다지며 점진적으로 본부 설립을 추진해나갈 계획

* IEEE는 1963년 미국에서 설립된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단체로, 전 세계 175개국의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 50만여 명으로 구성되어 전기·전자분야 주요 표준 및 연구정책을 발표하는 등 관련 분야의 실질적인 국제표준화 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와 업무협약 체결

일 시	2021. 12. 15.(수)
주요 내용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ESG), 핀테크, 공동 웨비나 개최, 미래의 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금융시장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예정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는 2004년 설립 이후 현재 약 28,000명의 금융전문가들과 3,200개 기업이 집적한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MEASA)의 핵심 금융중심지로서 지난 17년간 아시아, 유럽, 미국과 MEASA 지역 내 신호경제국 간의 투자 증가 역할을 수행해 왔음. DIFC는 영국 관습법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인 사법체계를 갖춘 금융 자유무역지대이며, 최신 기술, 혁신, 사업제휴 등을 통한 미래 금융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사업 초기의 스타트업 펀딩 등 핀테크와 벤처 캐피털과 관련하여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국민의 행복과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최고의 주택금융 연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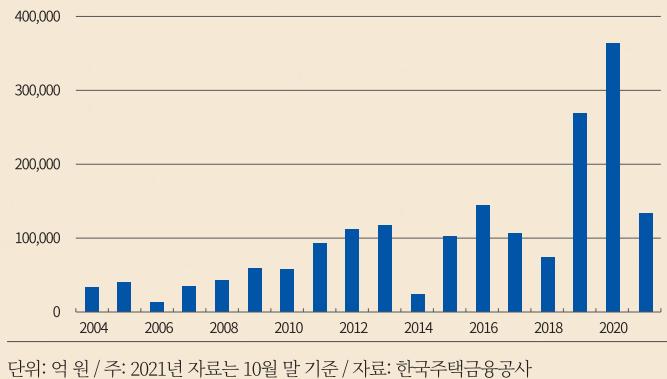
1 주택금융연구원의 시작과 주요 사업

주택금융연구원은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Korea Housing Finance Cooperation)의 설립과 함께 조사부로 시작했으며, 2016년 주택금융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조사연구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조직은 2실(연구지원실, 조사연구실), 6팀(연구기획팀, 통계분석팀, 국제업무팀, 가계금융연구팀, 유동화연구팀, 기금연구팀)으로 구성되며, 박사급 전문연구인력 10여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인력이 운용 중입니다.

공사 고유사업인 정책모기지 공급(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연금 외에도 주택시장, 부동산 통계 및 지표

개발, 가계부채 관리 등 주택금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주제의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승인통계인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 실태조사」는 공공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택구입부담지수(K-HAI), 주택구입물량지수(K-HOI) 등의 통계지수 공표를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업무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택금융 관련 유관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연구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국제협력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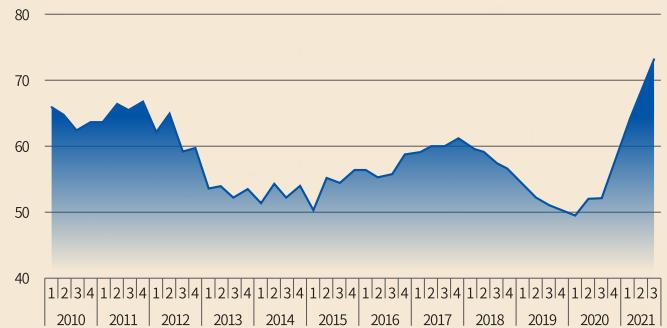
<그림.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공급액



2 주택금융의 역할과 주택시장 변화 흐름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 과잉은 자산시장의 과열과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은 가중되었고<그림.2>, 가계부채로 인한 거시·금융 경제의 건전성 악화 우려 또한 높아진 상황입니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삶의 근간이 되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입체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림.2> 주택구입부담지수(K-HAI) 추이



주: 중위소득가구가 표준대출로 중위가격 주택구입 시 대출상환부담 / 자료: 주택금융연구원
거시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사회적 요인도 향후 주택시장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키고, 국가의 부양부담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고,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연구의 수요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야기한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은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에도 큰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미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상품 설계가 주택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금융 수요 역시 증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주택금융이 주택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금융연구원에서도 자동답보가치평가(Automated Valuation Model), 부동산 위험거래 탐지 시스템(Fraud Detect System) 구축, 빅데이터 기반의 주택시장 변동성 분석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 수요에 대응한 연구 과제를 단계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혁신적인 공사 업무 추진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3 서민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 연구

국내 주택시장에서 주택금융 관련 연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주택연금을 통한 고령화 시대 대응(안정적 노후생활 방안), 주택금융의 디지털 혁신, 주택저당증권(MBS) 활성화를 통한 주택자금의 유동성 확보와 효율적 금융지원 등 주택금융시장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면밀하고 깊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정책연구 요구에 시의성 있는 연구 결과 제공을 위해 다양한 관점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 결과물의 대외 활용도 제고와 사회적 가치창출에 집중하여 주택금융 대표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가시적 성과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샌드박스팀에서 2021년 8월 18일에 발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핀테크산업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의 주요 내용입니다.



- | 전담인력 1,237명 증가, 투자유치 2,732억원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총 153건 승인, 그 중 88건(58%)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진행 중

1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요

- | ’19.4.1.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동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습니다.
- |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1.7.21일부터 시행되어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례기간도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고용증가 및 투자유치 현황

- | ’19.4.1. 이후 총 1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여 현재 8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중(‘21.7월)이고, ’21년 하반기중 총 132건(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 일자리 증가

서비스 전담인력 현황(‘21.3월 기준, 누계)

구 분	전담 인원
금융회사 등	639명
핀테크회사	598명
합계	1,237명

전담인력 추이(단위: 명,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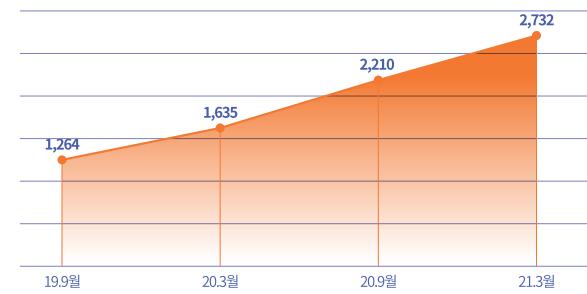
- |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237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있었습니다.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다양한 혁신서비스의 발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2 : 투자 유치

혁신금융사업자 투자유치 현황(‘21.3월 기준, 누계)

투자자	투자유치 금액
벤처캐피탈	1,051억원
금융회사	896억원
기업	599억원
개인	186억원
합계	2,732억원

투자유치 추이(단위: 억원, 누계)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2,732억원*의 투자가 이루어 졌습니다.

* 은행 설립 등 혁신금융서비스 외 다른 사업 비중이 높은 빅테크 등의 자금조달을 제외한, 31개 핀테크회사의 신규 투자유치금액

-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는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 지난 2년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샌드박스 운영, 관련기관(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함께 희망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면담 등 실시하여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 기존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들이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 D-테스트베드도 차질없이 실시하여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참고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사례

|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어,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대출비교서비스) 약 31만명이 총 5조 5,378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금융소비자에게 약 210억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 발생
 - * 플랫폼을 활용하는 금융회사간 경쟁이 우대금리 약정으로 이어지고 있음
- (해외주식소수점 투자) 약 74만명이 총 8,577억원의 해외소수점투자를 하였으며, ’21년 월평균 거래금액 및 투자가능 종목수가 ’20년 대비 약 2배*로 증가하여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
 - * 월평균 거래금액 2배 증가(’20년 736억원 → ’21년 1,407억원), 투자가능 종목수 2배 증가(’20년 354개 → ’21년 735개)
-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통장잔고가 부족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기반으로 송금 후 결제월에 상환하는 서비스로 약 88만명이 총 460억원 이용
- (신용카드 결제) 코로나19 영향으로 O2O 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용카드 결제가 크게 증가하여 약 55만명이 총 1,122억원 결제
 - 한편, 판매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를 통해서도 약 2.3만명이 총 476억원 결제
- (실명확인 서비스) 안면인식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실명확인하는 서비스로 8.8만명이 서비스 이용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핀테크산업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2021.8.18



2021년 선박 및 선박금융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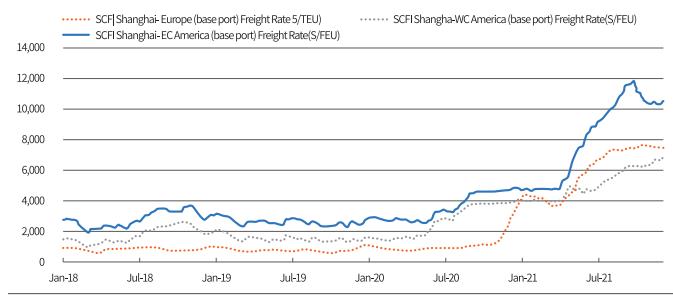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종서

1 선박 거래 시장 동향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지 못한 채 맞이한 2021년 역시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었다. 세계적인 백신 접종에도 국제간 교류는 여전히 순탄하지 못하였고 물류에서는 혼란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혼란은 선박의 공급부족 효과를 일으키며 운임이 크게 상승하였다. 무역시장은 혼란에 빠졌으나 해운,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예상외의 호조였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급증하며 컨테이너선 운임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컨테이너 해운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항만과 물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차질을 빚기 시작하였고 선박의 하역이 늦어지며 선복과 컨테이너의 순환이 원활치 못하였다. 유럽 역시 백신 규정 등에 의하여 컨테이너 트레일러 기사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등 선진국에서의 물류 흐름은 바이러스에 가로막히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는 해운 공급부족 효과로 이어져 2020년 4분기 이후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1년 내내 이어졌다.

원양 컨테이너선 운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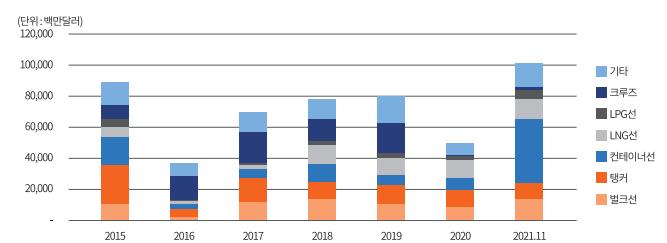


* 자료 : Clarksons, 상하이항운교역소

2021년 들어 12월 초까지 원양 컨테이너선 운임은 상하이-유럽

노선 99.8%, 상하이-미 서안 노선 72.0%, 상하이-미 동안 노선 117.9%씩 각각 상승하였다. 상승률이 높은 수준이나 이는 지난 해 4분기부터 운임급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운임이 이미 높은 상태인 지난해 연말과의 비교치에 불과하다.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상하이-유럽노선은 7.4배, 상하이-미 서안 노선은 4.9배, 상하이-미 동안 노선은 4.1배 수준이다. 모든 원양 노선의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물류의 혼선으로 선박의 순환이 원활치 못한 점은 해운사들로서 손실이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손실을 모두 메우고도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수준까지 운임이 치솟았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많은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었다. 컨테이너선사들의 높은 수익은 신조선 시장의 호조로 이어졌다. 컨테이너 원양 운임이 급등한 지난해 4분기부터 많은 물량의 컨테이너선들이 발주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신조선 시황이 반전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21년에도 이어져 연초부터 컨테이너선 중심의 발주량이 급증하며 시황 호조가 지속되었다. 2016년 이후로 지속된 신조선 수요 침체를 종식하는 듯한 흐름이 이어졌다. 상반기에 집중된 컨테이너선의 발주는 하반기에 크게 둔화되었으나 상반기 중 거의 수요가 없었던 LNG선이 하반기에 집중 발주되며 신조선 호조 흐름을 이어나갔다.

선종별 세계 발주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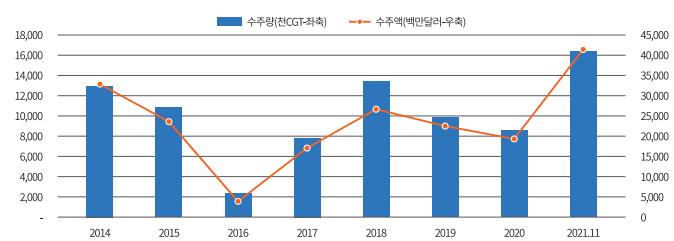


*자료 : Clarksons

세계 발주액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11월까지 세계 신조선 발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150.1% 증가한 1,009.9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중 컨테이너선 발주액이 4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BDI가 11년만에 5,000선을 넘어서며 해운시황이 크게 호전된 벌크선이 14%로 그 뒤를 이었다. LNG선의 비중은 13%를 차지하였다. 해운시황이 부진하였

던 탱커의 비중은 약 11%로 다소 약한 신조선 수요를 나타냈다. 이러한 시황 호조로 한국 조선산업 역시 모처럼 많은 일감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한국 조선업계는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의 경쟁력 우위를 기반으로 연초부터 다량 수주에 성공 하여 11월까지 총 1,661만CGT, 419억달러의 수주실적을 거두고 있다.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188.4%, 수주액은 215.2%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회복 수준이라 판단할 수 있는 2014~2015년 실적을 넘어 에코십의 등장으로 반짝 호황이 있었던 2013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국내 조선업계의 예상과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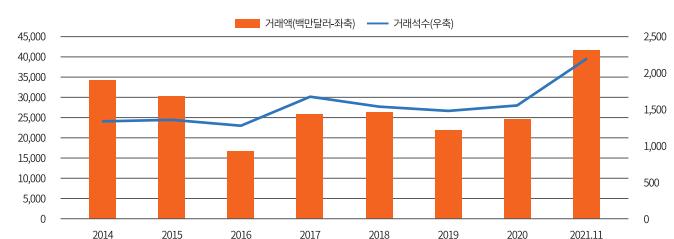
한국 신조선 수주 추이



*자료 : Clarksons

해운시황 호전시 즉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중고선 거래시장이다. 컨테이너와 벌크선의 해운시황 호조로 신조선 수요뿐 아니라 중고선 거래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2021년 11월까지 중고선 거래액은 415.9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94.6% 증가하였다. 연간 거래액이 4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2007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2007년은 벌크선 부족사태 등 선박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해이다. 금년도 중고선 거래물량은 11월까지 2,179척 1억 3,611만dwt로, 가격효과를 제거한 물량 측면에서는 95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¹⁰⁾

세계 중고선 거래 추이



*자료 : Clarksons

1) 자료를 제공하는 Clarkson이 95년부터 거래기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95년 이후 최고치로 기술하였으며 사실상 사상 최고치로 추정됨

금년도 선박 거래가 급증한 표면적 요인은 해운시황의 호조에 따른 선주들의 재무상황 개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류차질에 의한 운임 상승은 일시적 요인으로, 코로나19 이전까지도 선복량 과잉에 시달리던 해운업계가 대대적인 선박 투자에 나선 점은 다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금이 모이면 선박투자에 나서는 것이 선주들의 본능”이라는 말이 있으나 컨테이너선 업계가 연초 선복량의 17%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의 신조선을 발주하고 중고선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는 보다 근본적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해상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IMO의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와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규제 등 강력한 2가지 규제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U는 독자적으로 2023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해운업에 확대 적용한다. 2023년으로 다가온 규제들만으로도 많은 선박들이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속운항하여야 하고, 선박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투자하여야 하며 EU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노후화 또는 연료효율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심각한 경우 정상적 영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해운사의 입장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규제가 강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획기적인 저탄소 혹은 무탄소 연료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발주된 선박들의 경우 가장 많은 선주들이 대안으로서 LNG 이중연료를 선택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석유연료 대비 약 20% 내외의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할 뿐이다. 해운사들은 혼란에 빠져있으며 뚜렷한 전략은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그린 메탄을 생산에까지 투자하며 자사의 전략을 확고하게 추진하는 선주는 머스크와 같은 세계 최대선사 정도이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거래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023년부터 EEXI 효과로 많은 선박들의 감속운항이 시작되면 공급부족 효과에 의해 추가적인 선박수요가 발생한다. CII 규제로 퇴출 선박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부터는 교체수요도 발생한다. 노후선을 폐기하고 선령이 낮은 중고선으로 대체하며 상당 기간을 벼텨 보려는 전략을 수립한 선주들에 의해 중고선 거래가 증가할 전

망이다. 그러나 쓸만한 중고선의 수량도 한계가 있고 가격도 치솟을 것이 예상되어 궁극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LNG연료 등 가장 최근 상용화된 대안 연료에 투자하는 신조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선이든 신조선이든 선박에 대한 신규투자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선박금융 시장은 해운업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컨테이너선 운임 급등으로 컨테이너 선사들의 어닝서프라이즈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그들도 1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온 불황의 영향으로 투자 여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내 간판 컨테이너선사인 HMM이 2021년 엄청난 수익을 올렸음에도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없다는 기사가 이를 반증해준다. 결국 선사들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선박투자 향방은 선박금융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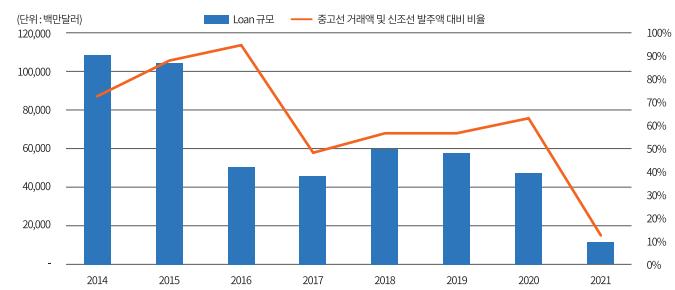
2 선박금융시장 동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2010년말 남유럽위기 이후 전통적인 선박금융 제공처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유럽계 은행들은 선박에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호황기 직후 발생한 경제적 혼란기에 선박으로 인하여 전통적 선박금융 은행들조차 큰 손실을 입으며 선박금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운업과 조선업의 불황이 가장 심각했던 2016년 이후 은행권의 선박금융 신디케이트 대출은 크게 줄어든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모처럼 해운업, 조선업이 동반 호조를 보인 2021년에도 은행권의 움직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은행권의 신디케이트 대출은 크게 위축된 수준이다. Marinemoney가 Dealogic를 인용하여 발표하는 21년도 상반기 세계 해양금융 신디케이트론 신규거래 실적은 116억달러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실적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신조선 거래 시 선박건조 계약 후 사후 금융거래가 성사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2020년의 신조선 부진이 일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부터 해운시황이 급격히 호전되며 신조선과 중고선 거래계약이 급증하였음을 감안하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상반기 신디케이트 대출 실적은 동 기간 신조선 및

중고선 거래액의 13% 수준에 불과하였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세계 은행권의 해양금융 Syndicated loan 거래실적 추이



*자료 : Marinemoney, Dealogic, Clarksons

많은 선박 거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자금제공이 빈약하다면 이를 대체하는 다른 부문의 금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리스금융도 지난 10여 년간 선박금융 시장에서의 비중을 확대하며 유럽 은행권의 빈 자리를 메워왔고 금년에도 그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투자나 채권 등 equity 금융시장 역시 이러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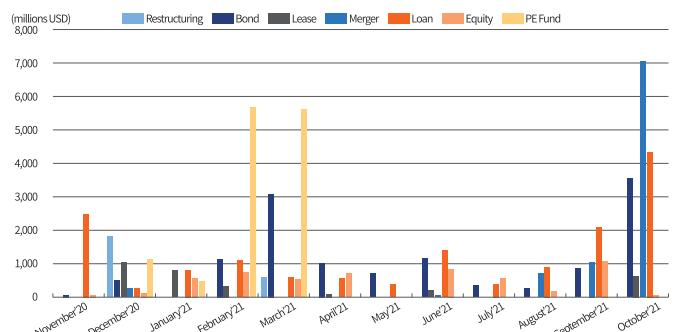
Marinemoney가 발간하는 Freshly Minted는 금년도 7월 22자 “Yields Drop, Equities Soar and the Ship Finance Markets are Open!”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일부 전달하고 있다. 동 기사에서는 최근 수개월간 21개의 선박 거래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회사채, IPO, M&A 등 다양한 금융수단이 선박거래에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많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었으나 초저금리와 자산가치의 고평가로 이를 자금이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박시장이 refinancing과 equity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Marinemoney가 수집하는 Deal database 자료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수집된 거래 데이터베이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Deals at a Glance” 그래프를 살펴보면 2021년 들어 월별로 지속적이지는 않더라도 사모펀드나 채권, 합병 등이 간헐적으로 매우 크게 증가한 실적이 나타난다. 2월과 3월에는 사모펀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고 3월과 10월에는 채권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다. 10월에는 합병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equity 부문은 금년도 선박금융 시장

에서 은행권보다 더 높은 참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신조선 및 중고선의 거래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래프에서 대출(loan) 활동 역시 8~10월까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기술한 상반기 중의 극히 부진한 결과와는 대조적 결과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은행권의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Marinemoney 선박 거래 데이터베이스의 금융 현황



*자료 : Marinemoney 홈페이지 캡처

3 시사점

극심한 불황 뒤 금년도 해운시황과 신조선 발주의 호조는 해운업계, 조선업계 모두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해상환경규제의 강화로 시장 여건이 급변하며 앞으로도 선박의 거래 수요는 적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선박금융 시장의 현황은 과연 이러한 거래 수요들을 뒷받침하며 선박시장이 원활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 다소 우려가 앞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권보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급증한 세계적인 유동성이 금융을 제공한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유동성을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 증가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며

미국 연준을 포함한 각국 통화당국에서 유동성 회수를 통한 테이퍼링 스케줄도 고민하고 있다. 선박 시장에서 더 이상 사모자금 등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회사채도 발행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다. 선주들이 선박을 구매하기 위하여 의존할 수 있는 금융 수단이 점차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통적 선박금융 은행들을 포함한 은행권의 대출 규모 회복 및 확대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선박거래를 위한 자금수요에 어떻게 은행권이 대응할 것인지 설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해운 및 조선업계의 별도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환경규제에 대응하는 해운업계는 혼란 상황이다. IMO와 EU는 현재 개발된 선박의 기술수준에 대한 고려보다는 우선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맞춘 규제를 시행하려 한다. 여기에 해운업계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뚜렷한 대안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선업계도 최적의 해법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융권의 입장에서 상당한 리스크 확대로 해석할 수 있다. 해운사들의 환경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를 운임에 반영하고 영업실적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환경규제 대응 비용을 낮추고 화주-선주-조선사가 상호 견전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조선업계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매진할 것이며 선주들과 소통을 통하여 점차 해법을 찾아갈 것이다. 그런데 소통의 주체에 반드시 금융기관도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막연한 우려로 인식하지 않고 해운시장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금융기관들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상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박 시장의 변화 요구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단계적 혁신보다 더욱 강도가 높다. 과거의 혁신은 운송의 효율성, 경제성의 개선이 변화의 모티브였다. 그러나 이번 변화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인류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해상운송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 급격한 변화 요구의 이유이다. 이러한 급진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들도 그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는 서로의 도움과 소통의 기반 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부록

INFO

- 부산 일반 현황
- 부산 지역 금융기관
- 점포 현황



부산 일반 현황

	기준	단위	통계	전국대비비중(%)
--	----	----	----	-----------

GRDP 규모

부산	2019년,	십억원	92,445	4.8
부산·울산·경남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기준	십억원	280,223	14.6
전국		십억원	1,923,977	100.0

부산 GRDP 산업별구성

농림어업	%	0.4	1.1	
제조업	%	17.6	3.1	
건설업	2019년, 지역내총부가가치 (기초가격)기준	%	6.8	5.4
서비스업(금융보험업)		%	73.8(7.0)	5.7(5.7)
광업·전기·가스·증기·수도		%	1.4	4.6
전산업합계		%	100.0	4.9

부산·울산·경남 GRDP 산업별구성

농림어업	%	1.7	13.8	
제조업	%	37.2	19.2	
건설업	2019년, 지역내총부가가치 (기초가격)기준	%	5.8	13.7
서비스업(금융보험업)		%	53.3(4.7)	12.1(11.1)
광업·전기·가스·증기·수도		%	2.0	18.5
전산업합계		%	100.0	14.3

컨테이너 처리량

부산	2020년 중	천TEU	21,824	75.5
전국		천TEU	28,916	100.0

거주환경(부산)

면적	2020년 말		770	0.8
인구	2020년 말	명	3,391,946	6.5
기온	2020년 평균	°C	15.2	
강수량	2020년 중	mm	2,281.6	

외국인관련(부산)

외국인 등록인구	2019년 말	명	45,999
외국인 학교	2020년 말	개	5
외국인 관광객	2020년 말	만명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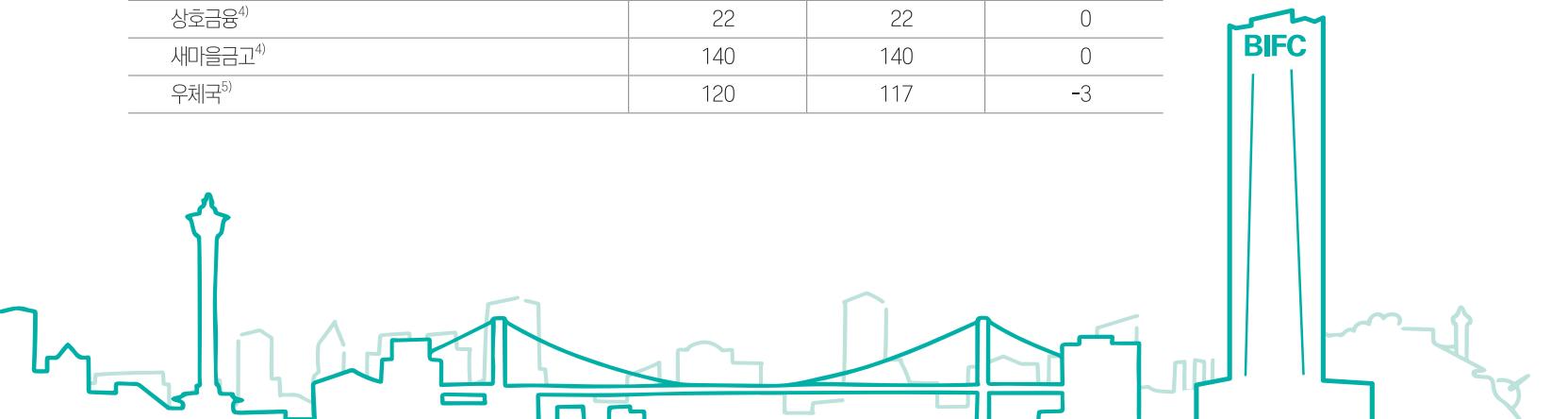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부산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¹⁾

기관명	2019년말	2020년말	증감
합계	2,216	2,091	-125
예금은행	567	528	-39
일반은행	448	408	-40
시중은행	219	195	-24
우리은행	50	45	-5
SC제일은행	14	12	-2
KB국민은행	72	60	-12
한국씨티은행	2	2	0
신한은행	38	37	-1
KEB하나은행	43	39	-4
지방은행	226	210	-16
대구은행	5	5	0
부산은행	209	193	-16
제주은행	1	1	0
경남은행	11	11	0
외은지점	3	3	0
아마구찌은행	1	1	0
중국공상은행	1	1	0
메트로은행	1	1	0
특수은행	119	120	1
IBK기업은행	41	42	1
NH농협은행	61	61	0
SH수협은행	13	13	0
한국산업은행	4	4	0
비은행금융기관	1,649	1,563	-86
수출입은행	1	1	0
신탁회사 ²⁾	636	593	-43
자산운용회사 ³⁾	654	614	-40
상호저축은행	28	28	0
신용협동조합 ⁴⁾	48	48	0
상호금융 ⁴⁾	22	22	0
새마을금고 ⁴⁾	140	140	0
우체국 ⁵⁾	120	117	-3

주

- 1) 출장소 포함
- 2)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신탁계정을 신탁회사로
지칭
- 3) 자산운용사 펀드상품의
판매점포수
- 4) 조합수(본소 기준) 또는
금고수 기준
- 5) 우체국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체신취급국 및 지방
우정청 제외



INFO

부산금융중심지 일반 현황

부산금융중심지 일반 현황

■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경과

- 2007년 12월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 2008년 04월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 2008년 11월 :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울, 부산, 인천, 제주, 경기)
- 2009년 01월 : 해양·파생금융특화 금융중심지 '부산', 종합금융 중심지 '서울' 지정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조성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1번지 일원
- 면적 : 102,352m²
- 복합 사업개발 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토지면적	24,856m ²	12,276m ²	10,292m ²
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오피스 및 오피스텔, 호텔, 공연장, 상업시설 등	업무시설, 공공생활시설
건축규모	197,169m ² , 지하 4층, 지상 63층	183,132m ² , 지하 7층, 지상 49층 · 36층(U자형 2개동)	147,000m ² 45층
사업기간	2008. 4 ~ 2014. 6	2015. 8 ~ 2018. 11	2020 ~ 2025(예정)
개발현황	2014.12월, 입주완료	2014.12월, 입주완료	-

- 개별 사업개발

구분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규모	지하 2층, 지상 15층	지하 1층, 지상 4층	지하 3층, 지상 23층
착공/준공	2009.02 / 2011.05	2011.01 / 2013.06	2011.12 / 2014.07

■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지원 체계도

금융 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장)

금융중심지 관련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 간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부산광역시 (금융블록체인과)

부산 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

금융 중심지지원센터 (금융감독원)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유치, 금융중심지 조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

부산국제금융진흥원 (BFC)

부산시가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금융 관련 중·장기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및 금융산업 활성화에 기여



■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관련 주요 일자

• 부산금융중심지 기반 조성

- 2009년 7월,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 플랜 용역 실시
- 2010년 8월, 부산금융중심지를 해양·파생분야에 특화된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기본계획* 수립 (* 2010.5 한국금융연구원 용역보고서)
- 2014년 6월, 부산국제금융센터 1단계 복합개발사업(63층) 준공
※ 준공식 : 2014. 8. 22
- 2014년 말, 이전 공공 금융기관 및 지역금융기관 입주
※ 이전공공기관(5), 지역기관(3), 해양금융기관(4), 개별기관(3)
- 2015년 4월, 2020년까지 총 4개*부문 12개 과제 단계별 추진
(*해양파생특화 중심지 구축, 국제수준 금융 인프라 구축, 지역금융산업 활성화, 금융 중심지 기본환경 조성)
- 2015년 8월,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착공
- 2018년 11월,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준공
- 2020년 7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출범
- 2021년 5월, 국제금융네트워크 'FC4S' 정식회원 가입

• 해양·파생특화 금융 중심지 육성정책의 추진성과

- <해양금융부문>**
- 한국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점 개소(2014년 10월)
 - KSF 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본부 개소(2014년 11월)
 - 해양금융종합센터 개소(2014년 11월)
 - 한국해양보증보험 협업 인가(2015년 6월)
 - 캠코선박운용 부산이전(2015년 6월)
 - 한국선박해양 개소(2017년 4월)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2018년 7월)
- <파생금융부문>**
- 한국거래소 내 파생상품연구센터 설립(2012년 2월)
 - 금리스왑거래 청산업무(CCP) 개시(2014년 3월)
 - 금거래소 개소(2014년 3월)
 -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소 개소(2015년 1월)
 - 청산결제본부 출범(2021년 5월)

• 지역 내 금융관련 전문인력 확보

-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2014년 9월)

• 국제 금융관련 교육연구기능 확충

-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소 (2016년 9월)

• 부산금융중심지 홍보 및 국내외 이미지 제고

- 매년 2회 유럽·북미·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IR 실시
- 한국선박금융포럼, 부산국제금융컨퍼런스 등 국제회의 개최
 - ▷ IOMA(세계옵션시장협회) 종회 : 2013. 5. 5. ~ 7. 파라다이스호텔
 - ▷ FIA(국제선물산업협회) 컨퍼런스 : 2013. 6. 12. ~ 13. 파라다이스호텔
 - ▷ ACSIC(아시아신용보완기관연합) 종회 : 2013. 11. 12. ~ 14. 조선호텔
 - ▷ IDB(미주개발은행) 종회 : 2015. 3. 26. ~ 29. 벡스코
 - ▷ FATF/APG(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 : 2016. 6. 18. ~ 24. 파라다이스호텔
 - ▷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종회 : 2018. 5. 21. ~ 25. 벡스코

•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 중심지 내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과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조례 개정

*법인세 또는 소득세 : '18.12.31 -> '21.12.31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1제1항, 2항),

취득세 : '20.12.31→'23.12.31까지로 연장(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

**선박투자회사 등록면허세 경감(부산시 남구 구세감면조례 제3조)

BIFC 입주기관 현황

• 63층 메인빌딩

63층	한국씨티은행	2명
50층~62층	한국거래소	353명
55층	IBK창공	12명
53층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4명
	캠코선박운용(주)	14명
52층	부산국제금융진흥원	12명
	신한은행	5명
	부산국제금융연수원	2명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	7명
	코스콤 부산센터	3명
	대한상사증권원 이타해사 증자센터	3명
40층~47층, 3층	한국자산관리공사	610명
36층~39층, 5층	한국예탁결제원	345명
30층~35층, 4층	한국남부발전	462명
23층~27층,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305명
13층, 2층, 7층		
22층	KSF선박금융	3명
	한국선박금융	2명
20층~22층	해양금융종합센터	76명
15층~19층, 10층~	주택도시보증공사	559명
11층, 6층		
14층	신용보증기금	49명
9층	부산은행	7명
	한국증권금융	6명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0명
8층	NH농협생명보험	139명
2층	NH농협은행	11명
	우리은행	10명
1층	국민은행(BIFC몰)	7명

• IFC부산

11층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3명
7층~10층	한국자산관리공사	84명

• 독립건물

기술보증기금	지상 15층, 지하 2층	328명
한국은행 부산본부	지상 4층, 지하 1층	69명
부산은행	지상 23층, 지하 3층	904명

BIFC 인센티브 제도

■ 외국 금융기관

구분	지원대상	본사/지역본부 신설	지점 신설	한국 내 본사/지역본부 이전	한국 내 지점 이전
		(국외 ▷ 부산)	(시역외 ▷ 부산)		
법인세 ¹⁾ 소득세 ¹⁾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해당없음	
재산세 ^{1) 2)}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 100% 면제		해당없음	
취득세 ³⁾		창업(또는 신설)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2023년12월31일까지 면제		해당없음	
입지보조금 ⁴⁾	3개국 이상을 관광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고용보조금 ⁴⁾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보조금 ⁴⁾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⁴⁾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 국내 금융기관

구분	지원대상	본사 창업	지역본부/지점 신설	본사이전	지역본부/지점 이전
				(시역외 ▷ 부산)	
법인세 ¹⁾ 소득세 ¹⁾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 감면		해당없음	
재산세 ^{1) 2)}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 100% 면제		해당없음	
취득세 ³⁾		창업(또는 신설)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2023년12월31일까지 면제		해당없음	
입지보조금 ⁴⁾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고용보조금 ⁴⁾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보조금 ⁴⁾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이전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⁴⁾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 근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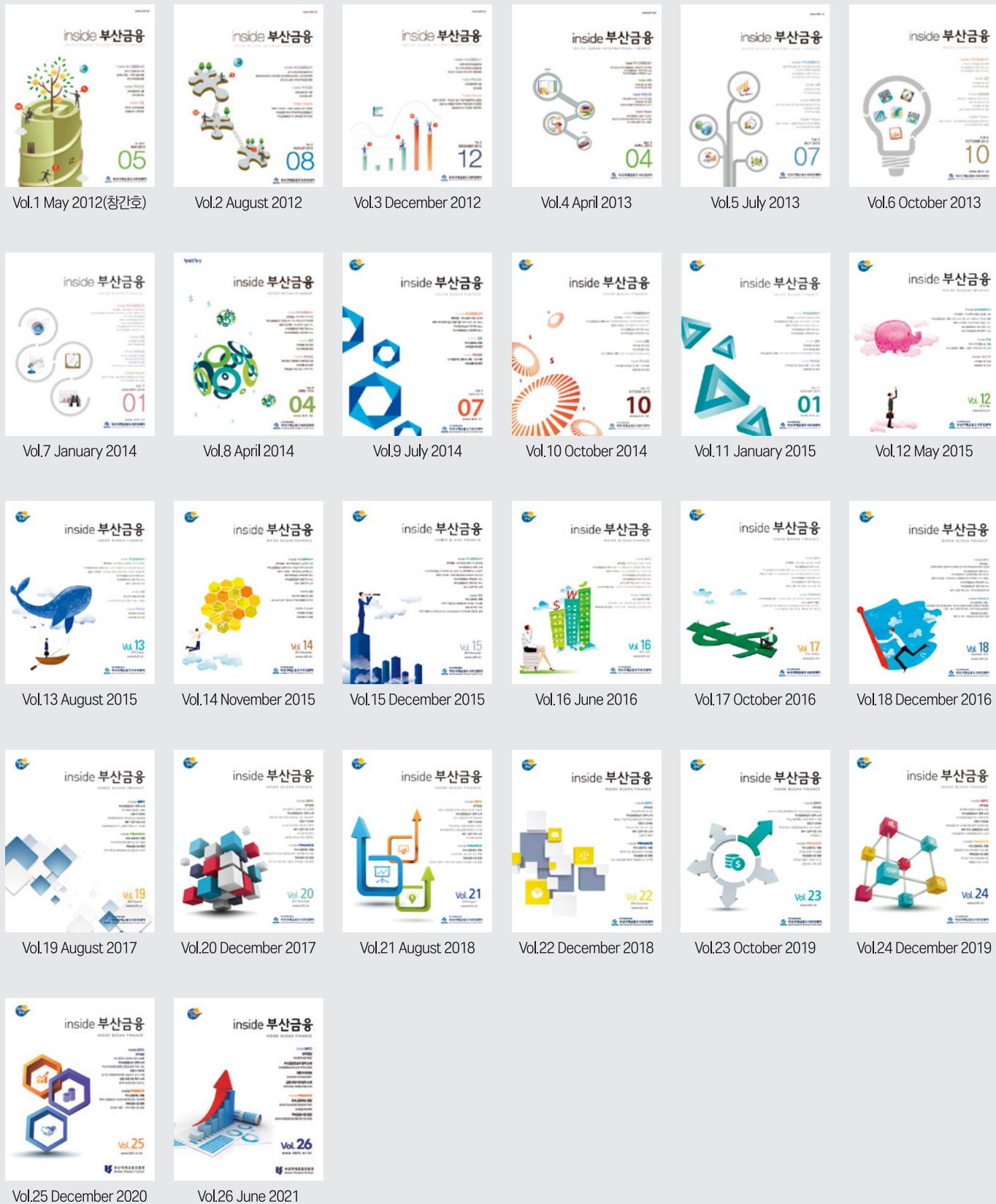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1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26

2)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제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 의거)

3)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4조 제1항

4)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inside 부산금융」 발간 목록



TIME FOR BUSAN

Busan has taken a great leap forward to become the maritime finance and derivatives hub of Asia through the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BIFC)**.

To go further, Busan is preparing for the next stage of fina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fintech hub center, "U-Space BIFC".

The 63rd Floor, Apex of BIFC

Busan Metropolitan City will provide a free long-term lease for office space on part of the top floor (63rd) of BIFC to financial institutions for 25 years.

- Rental area : 165m² on the 63rd floor of BIFC (total area of the 63rd floor is 1,566m²)
- Savings : 1.25 million USD (50,000 USD annually x 25 years)

There are also additional attractive incentive packages, including tax exemptions and subsidies.

